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중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햇살가득 농촌재생 1호' 탄생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전' 사업장 준공

오래된 정미소 활용 양조장·수제맥주 제조시설 등 구축
지역 전통 명주 생산... "6개월 이내 월 1억 매출 목표"

한적한 농촌 시골마을 한 편에 방치됐던 낡은 정미소가 맛과 멋, 흥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전북도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제1호' 사업장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전'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폐창고와 마을회관 등 유휴 자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이용시설로 재생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남원시가 공모에 선정돼,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농촌재생 프로젝트의 한창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이정린 도의원과 강영태 시의원,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전' 소영석 이사장 및 임원리 새마을회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술을 빚다'라는 의미로 협동조합 명칭을 정한 '비전'은 오래된 정미소를

활용해 양조장과 청년창업 수제맥주 제조시설 등을 구축하고 남원의 전통 명주를 생산하게 된다.

이날 문을 연 '비전' 사업장은 수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한 양조 설비도 구축했다.

아울러, 양조장 옆 오래된 정미소는 음아미 흐르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 카페로 변신했다.

전통주와 맥주를 빚기 위한 재료는 쌀, 보리, 비트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도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한 양조 개발도 꿈꾸고 있다.

도는 이번 햇살가득 농촌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및 지역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남원을 관광도시로서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농촌의 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햇살가득 농촌재생 사업이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제1호 사업장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전' 준공식이 1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이정린 도의원과 강영태 시의원 등이 테이프 컷팅식을 하고 있다.

고령화와 과소화로 어려움을 겪는 남원을 다시 숨쉬게 할 거라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탄생한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전'이 전북형 농촌재생 프로젝트 성공사례 1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집집마다 전통발효 누룩을 이용해 여러 가지의 기양주를 빚었으며, 특히 남원은 물맛이 좋고 공기가 깨끗해 좋은 술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맛 좋은 남원에 자리잡은 '비전'은 수도권 전통주 판매점과 인터넷 판로를 개척해 6개월 이내 월 1억원 매출

목표로 하고 있어 '비전'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한편, 소영석 이사장은 "양조 체험시설 및 이카테미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아시아스마트농생명
전북형 그린뉴딜 '탄력'

전북도, 케나프 기반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화 최종 선정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실현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힘이 될 전국 단위 공모에 선정됐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경진대회'에서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가 그린뉴딜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그린뉴딜 공모에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이라는 주제로 뛰어들었다.

특히, 플라스틱의 폐해가 비다는 물론, 토양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성에 주목했다.

일반 플라스틱이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 시간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 획기적(80일)로 단축시키는 계획안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북대와 일신화학 등 도내 플라스틱 업계와 연구를 진행하며, 특별교부세는 7월 중에 교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 보고 한옥마을로 Go! Go!'

관광거점도시 전주사와 역사문화도시 익산사가 손을 맞잡고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쇼와 한옥마을 투어로 꾸려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전주시와 익산시,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15일 익산시청 2층 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관광거점도시·익산역사문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익산의 역사문화지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날 협약은 오는 10월까지 mymy travel 시즌 익산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라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패키지 관광은 1일차는 익산에서, 2일차는 전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1일차에는 내비위성당~고스락~교도소세트장~구룡마을 대나무숲~

전주-익산 패키지 관광상품 출시

관광거점-역사문화도시 협약
9월 20일까지 공동 운영키로

달빛소리수목원~춘포역~쥬얼리협동조합 본점~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 등으로, 2일차에는 전주수목원~팔복예술공장~전주한옥마을 해설사 투어 등으로 구성됐다.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의 경우 1400년 전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의 장전 설화를 역사적 상상력과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 보여주는



15일 익산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거점·역사문화도시 협약.

디지털 공연이다.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드론쇼를 결합해 지금의 사라진 미륵사지 폭담을 재현할 예정이다.

이 패키지 관광 상품은 역사문화분야 전문여행기획사인 내비네트웍스가 참여해 각종 실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키로 했으며, 서울 두레관광과 힐링투어라인 등 유망 여행기획사들

도 참여키로 했다.

양 지자체는 이밖에도 서로의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이번 관광패키지가 전주한옥마을이라는 전통과 미디어아트라는 디지털을 결합한 새로운 체험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완주군 정음시와 연계해 전주한옥마을과 오성한옥마을, 내장산 국립공원과 쌍화차거리

등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전주·완주·정음'을 출시해 시범 운영했다.

김형훈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익산의 대표적 역사유적인 미륵사지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알리고 미륵사지 인근의 관광지 개발을 견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익산 역사문화도시 사업이 관광분야로 확장되면서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도시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연계 관광패키지를 통해 전주와 익산 간 연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광상품 개발의 새로운 단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시간이 통(通)하고 느낌이 통(通)하는 여행, 통통 군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